

# D램 가격 1달러 이하로 추락

## DDR3 0.88달러로 추가 하락 ... 낸드 플래스도 약세 지속

세계경기 침체로 PC 등 완제품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DDR3 2Gb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.

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, DDR3 2Gb 256Mx8 1333MHz의 12월 전반기 고정거래 평균가격은 0.88달러로 11월 후반기 평균(0.94달러)보다 6.4% 하락했다.

2010년 9월 초 4.34달러를 형성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10월 초 4달러, 11월 초 3달러가 무너졌고, 2011년 1월 초 2달러 아래로 내려앉은데 이어 5월 초 2.13달러로 상승했으나 6월 말 1.94달러로 다시 2달러 아래로 떨어졌다.

이후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해 12월 초 1달러까지 붕괴됐다.

12월 전반기 가격은 2010년 9월 4.34달러(최고치)와 비교하면 20% 수준에 불과하고 5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.

이밖에 DDR3 4GB(기가바이트) SO-DIMM 1333MHz도 16.5달러로 5.7%, DDR3 2GB SO-DIMM 1333MHz는 9.25달러로 2.6%, DDR2 512Mb 32Mx16 400/500MHz는 0.90달러로 4.3%, DDR 256Mb 16Mx16 200/250MHz는 0.81달러로 3.6%, SD램 128Mb 8Mx16 133/166MHz는 0.55달러로 5.2% 하락했다.

낸드플래시 가격도 낸드 64Gb 8Gx8 MLC가 평균 6.09달러로 전월대비 0.5%, 낸드 16Gb 2Gx8 MLC는 2.48달러로 5.3% 떨어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19>